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4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 풍전등화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5월 19일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하던 스리랑카의 경제는 이제 경제활동의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이 33.8% 급등했다. 국가부도 선언 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주력 산업이었던 관광이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였고, 국가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저소득층과 극빈 가정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주유소에서는 줄서있던 현지인들 사이에 다툼과 살인사건도 있었다. 현재 연료는 항공, 항만, 엠블런스 이외에는 공급되지 않는다. 중국의 부채가 스리랑카 경제위기에 한 몫 한 탓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인으로 오인되어 공격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었고, 정은범 선교사님도 기름이 거의 없어서 지난 수요일 초대받았던 지방 교회 집회를

취소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스리랑카의 현장소식을 정은범 선교사님께서 선교편지를 통해 전해 주셨다. 이번 소식지에는 정 선교사님의 선교편지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실제적 도움의 길을 찾게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연료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에 줄을 선 스리랑카 사람들

## 스리랑카 선교편지

정은범 오경연 선교사

### 아! 스리랑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꼭 반 지나간 오늘 3개월만에 드리는 스리랑카 소식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주께서 스리랑카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외환보유고가 바닥 난 상황에서 스리랑카는 최근 인도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식량과 약품 그리고 연료 구입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6월 말에 이르러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모든 정부학교는 일단 7월 10일까지 임시 폐쇄하였으며, 공무원은 가능한 한 재택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 회사도 최소한의 인력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만, 항공, 긴급 의료 등의 목적 외에는 7월 10일까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콜롬보시는 연료가 바닥난 차량들이 각 주유소 주변으로 2-3 열로 1-2킬로미터씩 대기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멈추어 선 것처럼 보입니다. LP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곤로를 꺼내 쓰다가 등유 구입도 어려워 도시 곳곳에서 다시 나무를 때서 음식을 짓고 있고, 매장의 식료품대 위에 품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9월이 되면 쌀 재고도 모두 소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단전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던 사마리아성에 주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곧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정'**

#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4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스리랑카 전국민의 2/3 가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6%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감리교회는 식량과 의료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정’이라는 타이틀 아래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월 3 만원씩 감리교본부를 통해 지원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텃밭 농사 지원 등이 실행됩니다. 지난 3 월과 4 월 콜롬보 인근 카루나가마 200 가정과 햇 톤지방 200 가정에 쌀과 밀가루 등 식료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구호 사역을 여러번 진행하였지만, 올해는 더욱 보람되게 느껴졌고, 빈손으로 왔다가 10 킬로 씩 쌀자루를 메고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 탈라와켈레 교회 건축이 시작된 가운데, 올 상반기 물가가 2-3 배 올라 건축비가 거의 2 배로 상승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주께서 예비하신 부분이 있어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다만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하여 올해 계획했던 교회 건축은 대부분 연기하였지만, 북부 킬리노치지방의 유니온쿨람 교회와 동부 트린코말리 아래에 위치한 탕가나가교회 건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성래 목사님이 주최하고 인도하시는 목회자 세미나가 7 월 4 일부터 8 일까지 열리게 되며, 칼엘리아 신학생들과 함께 하는 두번째 성경통독 모임이 7 월 18 일부터 21 일까지 이어집니다. 장작을 때서 30 인분 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기도 자주 나가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만큼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정에 동참하실분은 본 교회에 특별목적헌금(선한사마리아 여정)으로 표기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감비아	한병희	안신년 이후 개척할 학교사역과 입양공동체사역.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어린이 복음사역.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선교 30 주년 기념 행사 준비
스리랑카	정은범	국가정 경제 위기극복과 극빈 가정들, 한국 선교사님들의 안전. 한국의 세 자녀들
아리조나	모니카 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믿음. 수요 기도 모임.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필리핀	김대영	필리핀 재입국 과정 및 재개하는 필리핀 선교 사역, 사모님의 건강
T국	장과장&주열매	리더 훈련 수료한 H 가정의 사역 시작. 선교사님 시민권 승인
CRU	한정혜&데미안 브룩스	리더십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코스타리카	금상호	바른 복음의 재교육, 인디오 지역의 구제와 말씀 사역